



蘇聯의 資源現況과 原子力産業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에는 소련의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다. 소련의 과학과 기술에는 매우 독특한 발상에 의한 것이 많다. 이러한 발상들이 산업에 직접 연결되었을 때에는 큰 발전을 가져왔지만 경제구조나 그외 요인들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을 때에는 서방제국과 일본 보다 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소련의 장래를 전망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각종 문헌을 참고로 소련의 과학기술력을 정리해 보았다.

석유매장량 세계8위, 석탄매장량 세계2위, 천연가스매장량 세계1위 등 소련은 국토의 면적뿐만아니라 자원면에서도 가히 세계 최대의 국가임에 틀림없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에 힘입어 사회주의에서 점차 개방의 무드를 조성하려고 하는 소련은 이제 조금씩 비밀의 베일을 벗고 제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편승하여 오랜동안의 냉전 관계를 종식이라도 하듯 대사급의교관계가 수립되었고, 항공기의 직항로가 개설되었으며, 메스컴의 특파원이 상주하고, 학생들의 유학이 시작되는 등 양국간에는 짧은 기간동안 엄청난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다.

경제적인 협력관계는 민간차원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민간외교와 정부차원에서의 활발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

황이다.

이에 韓國原子力産業會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련과의 과학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1차 한·소공동조정위원회 및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의정서」의 합의사항에 따라 새로운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원산의 金善昶상근부회장은 지난 2월23일 原子力協力事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단에 합류하여 蘇聯을 방문 소련 원자력학회와 민간차원에서의 상호협력과 에너지의 안정적확보와 관련한 일련의 접촉을 가지고 귀국했다.

따라서 본 「原子力産業」 3月號에서는 소련의 과학기술, 원자력산업, 원자력이용 등 특히 Energy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한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註)